

선거제도, 사회균열, 그리고 의회정당체제: 신생민주주의국가 사례를 중심으로

안용훈 | 대구가톨릭대학교

| 논문요약 |

논문에서 우리는 정당체제 형성에 대한 대통령 및 의회선거제도와 사회균열 변수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려 했다. 이를 통해, 논문은 대통령선거제도인 결선투표제 변수와 의회선거제도인 비례대표제 변수 중 어느 요소가 그 사회의 사회균열을 더 잘 반영하여 정당체제 형성에 영향을 주는가를 규명하려 했다. 독립변수가 아닌 조정변수로서의 결선투표제와 비례대표제의 한계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논문은 결선투표제의 독립효과만을 보거나 선거방식으로서의 비례대표제의 조정효과를 다루지 못했던 기존연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다.

신생민주주의국가를 대상으로 한 패널분석결과에 따르면, 결선투표제는 사회이질성으로 측정된 사회균열을 정당형성에 반영하지 못한 반면, 비례대표제는 이를 정당형성에 잘 반영해주었다. 또한 결선투표제는 사회이질성의 정도가 낮은 국가에서는 정당형성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지만, 그 정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그 역할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I. 서론

이 논문이 분석하려는 연구주제는 결선투표제라는 대통령선거제도와 비례대표제라는 의회선거제도 중 어느 제도가 그 사회의 사회균열을 더 잘 반영하여 정당체제 형성에 영향을 주는가이다. 민주주의의 원활한 운영에 있어서 정당체제의 중요성은 수많은 논문에서 강조되어 왔지만,¹⁾ 특히 신생민주주의국가의 민주주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문제의 중요성이 제기된 것은 린츠의 대통령제 비판에 대한 메인웨어링의 반박으로 이어진 대통령제 논쟁이었다.

논쟁의 시발은 민주화 이행 후 신생민주주의국가, 특히 라틴아메리카국가가 경험하게 된 정치적 불안정은 민주화 과정 속에서 이들 국가들이 채택한 대통령제 때문이라는 린츠의 논문이었다(Linz 1990; Linz and Valenzuela 1994). 대통령제는 근본적으로 이중정통성(dual legitimacy), 승자독식(winner-take-all), 그리고 임기고정성 등과 같은 문제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채택한 국가들에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린츠의 주장이었다. 린츠의 대통령제 비판에 대해서, 메인웨어링(S. Mainwaring)은 대통령제만의 고유 문제로 지적되었던 요소들이 실상 내각책임제 국가에서도 발견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치적 불안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분석의 수준을 낮추어 정당체제, 그리고 대통령제와 정당체제 간의 상호관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한다(Mainwaring and Shugart 1997). 대통령제의 비극은 대통령제 자체의 요인에 의해서라기보다는 파편화된 정당체제(fragmented party system)에 의해 심각해진다는 것이다(Mainwaring and Shugart 1997, 465-466).

정당체제 연구에 대한 강조는 자연스럽게 정당체제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로 이어진다. 정당체제의 형성에 관한 연구의 근원은 크게 두 가지 분류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한 연구의 분류는 결빙명제(freezing

1) 이들 연구로는, LaPalombara and Weiner 1966; Michels 1966; Epstein 1967; Ostrogorski 1970; Sartori 1976; Panebianco 1988 등이 있다.

hypothesis)²⁾로 유명한 립셋(S. Lipset)과 로칸(S. Rokkan)의 사회학적 접근법에 의한 연구이다. 이들에 따르면, 유럽의 정당체제는 민족국가건설과 산업혁명이라는 두 개의 혁명적 과정 속에서 나타난 ‘사회균열(social cleavage)’³⁾에 의해 형성되었다(Lipset and Rokkan 1967, 13-23). 이 사회균열을 바탕으로 서로 다른 집단이 형성되었으며, 이렇게 형성된 집단의 이해를 표출하기 위한 조직으로서 정당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 이들의 핵심적인 주장이다.⁴⁾

또 다른 연구의 분류는 듀베르제(M. Duverger)에 의해 제시되고, 래(D. Rae)와 라이커(W. Riker)에 의해 발전된 제도주의적 접근법에 의존하여 이루어진 연구이다(Duverger 1954; Rae 1971; Riker 1982). 이들은 어떤 선거제도(electoral system)를 채택했느냐 여부에 따라 정당체제의 유형이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단순다수제(plurality system)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단순다수제가 지니는 정치적 효과, 즉 기계적 효과(mechanical effect)와 심리적 효과(psychological effect) 때문에 양당체제(two-party system)가, 다른 한편 비례대표제(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에서는 다당체제(multi-party system)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제도주의적 접근법의 이와 같은 논리는 대통령선거제도에도 적용된다. 논의는 대통령제라는 권력구조하에서는 그 어느 선거보다도 대통령선거가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을 선출하는 규칙인 대통령선거제도의 정치적 영향력은 매우 강할 것이라는 데에서 출발한다(Shugart and Carey 1992). 다시 말해, 대통령선거제도는 의회정당체제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Jones 1994). 대통령선거제도로서의 단순다수제는 의회선거제도의 단순다수제와 같은 정치적 효과를 발휘하는 반면, 결선투표제는 의회선거제도의 비례대표제와 같은

2) 유럽의 정당형성은 1920년대에 안정화되었으며, 이후 정당 간 정치경쟁의 성격은 이렇게 굳어진(frozen) 정당체제하에서 변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는 가설을 의미한다.

3) 사회균열이란 “집단 간의 단순한 갈등이나 분열이 아닌 조직에 의해 표출되는, 정체성을 지니는 사회그룹들 간의 사회분열(social division)”을 의미한다(Gallagher, Laver and Mair 1992, 210-211).

4) 사회학적 접근법을 채택한 연구로는 Allardt 1968; Cerny 1972; Inglehart 1972; Beck 1984; Inglehart 1984; Leduc 1984 등이 있다.

효과를 지닌다고 주장한다(Duverger 1986; Jones 1994).

서로 다른 이 두 가지 연구의 본류는 최근에 와서 하나로 합쳐진다. 정당체제 형성에 대한 최근 연구의 흐름은 이 두 접근법이 서로 배타적이지 않으며 상호 보완적인 방식으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Ordeshook and Shvetsova 1994; Neto and Cox 1997). 사회 내 다양한 사회균열로 인해 구성된 집단들의 조직이, 사회학적 접근법의 논리대로, 모두 의회 내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당, 즉 유효정당(effective legislative party)으로 전환되는 것이 아닐뿐더러, 그렇다고 다당제형성에 기여하는 선거제도를 채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회 내 사회균열이 적다면, 제도주의적 접근법의 주장대로, 다당체제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이 두 변수는 정당체제 형성이라는 종속변수에 대해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서로 상호작용(interactive effect)을 하여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연구에서 지적할 점은 두 변수의 상호작용에 대한 가설을 경험적으로 검증할 때, 선거제도⁵⁾ 변수를 비례대표제나 단순다수제와 같이 표를 어떻게 의석으로 전환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거방식(electoral formula)’이 아닌 선거구마다 몇 명의 의원을 선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거구당 의석수(district magnitude)’로 측정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이들 연구는, 제도주의적 접근법에서 원래 논의하는 것처럼, 비례대표제나 단순다수제와 같은 선거방식이 의회정당체제에 행사하는 정치적 효과를 파악하는 데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게 된다.

논문은 사회균열과 선거제도 변수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여 의회정당체제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기존연구의 논의를 바탕으로, 의회 선거제도인 비례대표제와 대통령선거제도인 결선투표제 중 어느 선거제도가 정당체제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그 사회의 사회균열을 더 잘 반영하는가를 분석하려 한다.

5) 선거제도(electoral system)라는 용어는 선거의 실시 시기는 물론, 유권자가 몇 표를 행사할 것인가를 다루는 투표의 구조(ballot structure), 대표자를 확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규정하는 선거문턱(electoral threshold), 표를 어떤 방식으로 의석으로 전환할 것인가를 규정하는 선거방식(electoral formula), 그리고 선거구마다 몇 명의 의원을 뽑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거구당 의석수(district magnitude)를 포함하는 것이다(Norris 2004, 39).

이렇게 함으로써 기존연구가 다루지 못했던 두 가지 부분, 즉 정당체제 형성에 대한 의회선거제도인 비례대표제 변수와 사회균열 변수의 상호작용 효과는 물론이고 대통령선거제도인 결선투표제 변수와 사회균열 변수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여 기존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려 한다.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문헌검토와 가설” 부분에서는 정당체제 형성에 관한 기존연구의 주요 주장을 검토하고, 이를 논리적 기반으로 하여 논문의 가설을 구성할 것이다. 다음 “연구방법의 논의”에서는 가설을 검증하는 방법과 관련된 방법론적 문제를 검토할 것이다. 이어지는 논문의 핵심부분인 “패널분석”에서는 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 변수가 사회균열 변수와 상호작용하여 정당체제에 미치는 정치적 효과를 패널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고, 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 중 어느 제도가 정당체제 형성에 있어서 잘 반영하는지를 평가, 해석할 것이다.

II. 문헌검토와 가설: 사회균열, 선거제도, 그리고 정당체제

정당체제의 형성에 관한 연구는, 앞서서도 언급했듯이, 사회학적 접근법과 제도주의적 접근법으로 나뉜다. 먼저, 사회학적 접근법은 정당(체제)의 형성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변수로 사회적인 요소, 즉 사회균열을 든다. 립셋과 로칸은 유럽의 정당체제형성을 분석하면서, 민족국가건설과 산업혁명이라는 두 역사적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사회균열이 형성되었다고 주장한다(Lipset and Rokkan 1967, 13-23). 정당 탄생에 결정적 역할을 했던 주요 사회균열을 거론한다면, ‘중앙과 주변’ 간의 균열, ‘교회와 국가’ 간의 균열, ‘도시와 농촌’ 간의 균열, 그리고 ‘계급’ 간의 균열을 논급할 수 있다(Gallagher, Laver and Mair 1992, 211-219).

앞의 두 사회균열은 민족국가형성 과정 속에서 나타났고, 뒤의 두 사회균열은 산업혁명 과정 속에서 등장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우선, 중앙과 주변

간의 균열은 국가를 건설하는 중앙세력의 국경 내에서 지역을 통합하려는 시도와 이에 저항하는 주변지역의 세력 간의 충돌과정 속에서 형성된다. 이 사회균열은 주변지역의 세력을 대변하려는, 예를 들어 캐나다 퀘벡지역의 ‘블록 퀘벡’이라는 정당의 탄생을 만들어낸다. 교회와 국가 간의 균열은 세속적 권력으로서의 국가와 종교적 권력으로서의 교회 사이에 전개되는 갈등, 특히 프랑스혁명의 도전에 대한 교회세력의 저항의 과정 속에서 나타난다(Lipset and Rokkan 1967, 15).

도시와 농촌 간의 균열과 계급균열은 산업화 과정에 나타나는데, 특히 산업화 초기에는 전통적으로 토지에 경제적 기반을 두고 있는 농촌지역의 세력과 산업혁명과 함께 새로운 경제적 세력으로 등장하는 도시지역의 세력 사이의 갈등이 표출하게 되며, 이와 함께 농촌지역의 이해를 대변하려는 정당이 나타나게 된다. 이 단계를 지나 산업혁명이 진행되면, 기존의 엘리트와 연합한 자본가계급과 새로이 등장하는 노동자계급 간의 계급균열이 나타난다(Gallagher, Laver and Mair 1992, 213-214). 이 계급균열은 사회당이나 사회민주당, 혹은 공산당의 결성을 가져온다. 이렇듯 사회학적 연구가 강조하듯이, 정당(체제)의 형성은 그 사회 내 사회균열의 유형이 어떠한지와 더 나아가 몇 개가 되느냐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 정당체제 형성에 대한 제도주의적 설명은 선거제도와 같은 제도적 요인의 정당형성에 대한 영향력에 초점을 맞춘다.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제도주의적 설명이 주목하는 선거제도는 단순다수제나 비례대표제와 같은 의회선거제도이다. 정당체제와 선거제도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주장은 양당체제와 다당체제에 관한 듀베르제의 명제(proposition)에서 찾을 수 있다. 듀베르제는 단순다수제는 양당제를, 비례대표제는 다당제를 초래한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⁶⁾ “단순다수(1인 선거구)제는 양당제를 낳는다. 이 책에서 제시된 모든 가설 중에서도 이 가설은 사회학적 법칙에 가깝다. 거의 완벽한 상관관계가

6) 라이커(W. Riker)는 듀베르제의 양당제에 대한 진술은 ‘듀베르제의 법칙(Duverger’s Law),’ 그리고 다당제에 대한 것은 ‘듀베르제가설(Duverger’s Hypothesis)’이라고 부른다(Riker 1982).

발견된다(Duverger 1954, 217).” “예외적인 사례는 매우 드물며, 그러한 사례는 일반적으로 특수한 조건 때문에 발생한다. 반면, 비례대표제는 다당제를 초래한다(Duverger 1954, 239).”⁷⁾

정당체제와 선거제도 사이의 이 인과관계의 논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단순다수(1인 선거구)제에서 대정당은 득표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차지하는 반면, 소정당은 득표율보다 적은 의석을 얻게 되는 결과가 나타난다. 이것은 유권자와 정당 정치인의 심리에 영향을 준다. 자세히 말하자면, 유권자들은 비록 자기들이 선호하는 후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후보가 소정당 출신이면 당선될 확률이 낮을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게 된다. 즉, 유권자들은 소정당 출신 후보를 찍은 표는 사표(wasted votes)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유권자들은 자신들이 지지하지만 당선될 확률이 적은 후보가 아니라 자신이 싫어하는 정당후보의 낙선을 위해, 자신들의 정치적 선호에 가까우면서 당선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정당후보에게 전략적으로 표를 던지게 된다(Riker 1982, 762-764).

유권자의 이러한 투표행위는 바로 정당 정치인에게 영향을 미친다. 당선자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소정당은 정치적 생존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며, 따라서 대정당과의 합당이라는 정치적 선택을 하게 된다. 그 결과 소정당은 정치적으로 소멸하게 되고, 양당체제가 형성하게 된다.⁸⁾ 다른 한편, 비례대표제하에서는 단순다수제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소정당은 유권자들의 표를 얻은 만큼 대체로 그에 비례하여 의석을 부여받기 때문에, 단순다수제에서와 같은 의석할당(seat allocation)과정에서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유권자는 자신들의 표가 사표가 될 것을 우려할 필요가 없으며, 비록

7) 정당체제와 선거제도와의 관계에 대한 이 기본적인 주장은 래(D. Rae), 라이커(W. Riker) 등에 의해 발전하게 된다.

8)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경우의 양당체제는 ‘선거구 수준에서’ 형성되는 것이라는 점이다. 라이커는 선거구 수준에서의 양당체제가 국가적 수준에서도 만들어지려면, 모든 선거구에서 동일한 사회균열(social cleavage)이 존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Riker 1982, 760-761). 그의 이 지적은 정당체제 형성이 선거제도 변수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지지정당 후보가 소정당 출신이라 하더라도 그에게 투표를 하게 된다. 유권자들의 이러한 투표행태는 소정당에게도 정치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며, 따라서 굳이 소정당은 대정당과의 합당이라는 선택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게 된다. 그 결과, 단순다수제와는 달리 비례대표제에서는 다당체제가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⁹⁾

선거제도와 정당체제 형성 사이의 인과관계 논의는 의회선거제도에서 대통령선거제도로 확대되어 전개된다. 존스(M. Jones)는, 슈가트(M. Shugart)와 캐리(J. Carey)의 연구를 바탕으로, 대통령제국가의 경우 대통령선거가 가장 중요한 선거기제이기 때문에, 어떤 유형의 대통령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느냐 여부가 정당체제 형성에 매우 중대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는 주장을 펼친다(Jones 1994). 대통령선출방식 중 하나인 단순다수제는 선거구 수준이 아닌 국가적 수준에서 의회선거방식인 단순다수제와 같은 방식으로 양당체제 형성에 기여하는 반면, 대통령선출방식으로서의 결선투표제는 의회선거방식인 비례대표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정당체제 형성에 작용한다고 주장한다.

결선투표제가 비례대표제와 같은 정치적 효과를 발휘하게 되는 이유는 결선투표제가 정당(후보) 간 연합을 유도하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안용훈 2009, 306). 지지하는 후보가 비록 결선투표에 나갈 가능성이 적다고 하더라도, 결선투표 과정에서 결선투표에 참여한 후보와의 정치적 협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요구가 어느 정도 관철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정치적 기대를 가지게 된다. 이와 같은 정치적 기대는 유권자로 하여금 자신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비록 소정당의 후보라 하더라도 그에게 표를 던지도록 작용한다. 그 결과 소정당도 정치적으로 생존할 수 있게 되어 다당체제가 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네토(O. Neto)와 콕스(G. Cox)는 이 두 접근법의 통합을 주장한다. 제도주의적 설명의 선구자인 듀베르제의 연구를 평가하면서, 이들은 듀베르제가 정

9) 단순다수제의 경우에서처럼, 라이키는 조심스럽게 사회균열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한다. 드문 경우이기는 하지만, 만약 그 사회에 여러 개의 사회균열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비례대표제를 채택했다고 반드시 다당제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Riker 1982, 758).

당형성에 있어 사회 추동동인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한다(Neto and Cox 1997).¹⁰⁾ 그들은 정당형성이 다음 세 가지 단계를 거쳐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그 첫 단계는 사회균열이 정당선호(partisan preferences)로 전환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정당선호가 표로 전환되는 단계이며,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표가 의식으로 전환되는 단계이다. 듀베르제의 제도주의적 설명에는 이 세 단계 중 첫 번째 단계에 대한 분석, 즉 사회균열의 영향력 부분이 빠져 있다는 것이 이들 비판의 요지이다(Neto and Cox 1997, 152).

그렇다고, 사회학적 설명이 주장하듯이, 사회균열에 의해 유발된 사회세력(유권자)의 정당선호와 요구가 정당형성에 그대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또한 이들은 지적한다. 정당선호가 표로 전환되고, 그 표가 의식으로 전환되는 과정은 선거제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선거제도는 사회균열에 의해서 조성된 정당선호가 실제 생명력 있는 정당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영향을 미쳐 정당선호가 그대로 정당형성으로 반영되기도 하고 이를 줄여 주기도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Neto and Cox 1997, 153).

정당형성에 대한 올바른 설명을 위해서, 이들은 사회학적 연구와 제도주의적 연구가 제시하는 변수, 즉 사회균열과 선거제도 변수들의 상호작용에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 논의에 있어서, 선거제도는 조정변수(modifying variable)로 취급되어진다. 자세히 말해, 정당형성에 대한 사회균열의 영향력은 선거제도 유형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다(Neto and Cox 1997, 154-155).

그런데 이들의 연구에서 찾을 수 있는 하나의 문제점은 조정변수로서의 선거제도의 효과를 분석하면서, 선거제도 변수를 선거구당 의석수로 취급하여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선거방식으로서의 비례대표제가 발휘하는 역할을 그들의 연구는 밝혀낼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서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논문은 선거구당 의석수가 아니라 비례대표제 채택여부를 가지고 선거제도의 영향력을 분석하려 한다. 또한 논문은 이와 같은 네토와 콕스의 논의, 즉 선거제도

10) 클락(W. Clark)과 골더(M. Golder)는 듀베르제에 대한 네토와 콕스의 평가에 문제를 제기한다. 네토와 콕스의 지적과는 달리, 듀베르제는 정당을 사회세력의 반영물이라고 보고 있으며, 제도는 정당형성에 대한 사회세력의 영향력을 수정하는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들은 주장한다(Clark and Golder 2006, 680-682).

는 정당형성에 대한 사회균열의 영향력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주장을 확장시켜 비례대표제뿐 아니라 결선투표제 채택여부에 따라 사회이질성으로 측정¹¹⁾하는 사회균열의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다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구성하려 한다. 논문은 이 두 가설의 검증을 통해, 서론에서 제기했던 질문인 “어느 선거제도가 사회균열이 정당형성에 잘 반영하도록 작용하느냐”에 대한 해답을 구할 것이다.

가설 1: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
사회이질성은 정당의 수를 증가시킬 것이다.

가설 2: 결선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
사회이질성은 정당의 수를 증가시킬 것이다.

III. 연구방법의 논의: 분석사례, 분석방법, 그리고 변수측정

이 논문의 분석사례국가는 “제3의 물결(The Third Wave)”의 시기¹²⁾에 권위주의정권에서 민주주의정권으로 정권이행을 경험한 국가 중 대통령제를 권력구조 형태로 채택한 신생민주주의국가이다.¹³⁾ 이 시기에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등을 포함하여 총 18개 국가가 민주화를 경험한다.¹⁴⁾ 이 18개 국가에서 4개

11) 변수의 측정에 관해서는, 다음으로 이어지는 “연구방법의 논의”부분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12)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후반 시기에 세계는 민주화의 정치적 대변혁을 경험하게 된다(Huntington 1993).

13) 신생민주주의국가를 분석사례로 선택한 이유는 민주화 과정 속에서 채택한 정치제도들이 이후 이들 국가의 정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자 하며, 또한 서구사례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기존연구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이다.

14) 이 시기에 민주화를 경험한 국가를 체이브(A. Cheibub)의 민주주의체제 유형 자료에 따라 분류하면, 아르헨티나(Argentina), 볼리비아(Bolivia), 브라질(Brazil), 칠레(Chile), 에콰

국가는 제외한다. 왜냐하면, 이 4개 국가는 권력구조 형태로 대통령제가 아닌 내각제를 채택했기 때문이다.¹⁵⁾ 따라서 논문의 종속변수는 이들 14개 국가의 민주화 이후 2003년까지의 정당체제 변화가 된다. 이런 점에서, 논문의 분석 자료는 횡단면적인 동시에 시계열적인, 즉 패널자료(panel data)의 성격을 띠게 된다.

논문의 분석자료가 패널자료(panel data)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회귀분석방법으로 채용되고 있는 최소제곱방법(Method of Ordinary Least Square: OLS)¹⁶⁾은 논문의 적절한 분석방법이 될 수 없다. 논문은 패널분석방법으로 벡(N. Beck)과 카츠(J. Katz)가 권장한 방법을 사용하려 한다. 다시 말해, 통합화된 일반최소제곱방법(pooled OLS)에 의해 계수를 추정하고 이를 패널수정화된 표준오차(Panel-Corrected Standard Errors)방법에 의해 검증하려 한다(Beck and Katz 1995). 그런데 논문의 패널자료의 경우, 횡단면 자료와 시계열 자료의 크기가 같지 않은 비균형화면(unbalanced) 것이기 때문에, 공분산행렬(covariance matrix)의 오차는 쌍별 계산법(pairwise computation)을 이용하여 구할 것이다

도르(Ecuador), 엘살바도르(El Salvador), 그레나다(Grenada), 과테말라(Guatemala), 온두라스(Honduras), 한국(Korea), 니카라과(Nicaragua), 파키스탄(Pakistan), 파나마(Panama), 필리핀(Philippine), 스리랑카(Sri Lanka), 태국(Thailand), 터키(Turkey), 그리고 우루과이(Uruguay)가 된다. 콜롬비아(Colombia), 코스타리카(Costa Rica), 도미니카공화국(Dominican Republic)과 같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는 체이법의 기준에 따르면 신생민주주의 국가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이들 국가가 이미 제3의 물결시기 이전에 민주화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체이법의 정권유형 분류지표 자료는 노리스(P. Norris) 교수의 홈페이지 사이트에서 구할 수 있다.

이 사이트의 주소는 <http://ksghome.harvard.edu/~pnorris/Data/Data.htm> (검색일자: 2010년 9월1일)이며, 이 사이트에서 "Democracy Timeseries Data Release 3.0, January 2009"를 다운로드하면 이 자료를 구할 수 있다.

15) 논문에서 내각제 국가 사례를 제외하는 이유는 논문에서 정당형성에 대한 대통령선거제도와 의회선거제도의 영향력을 동시에 분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논문에서 제외되는 내각제 국가 네 나라는 그레나다(Grenada), 파키스탄(Pakistan), 태국(Thailand), 그리고 터키(Turkey)이다.

16) 일반최소제곱방법은 동분산성(homoskedasticity)과 무자기상관(no autocorrelation)이라는 기본 가정을 전제한다(Gujarti 2004, 441-443; Wooldridge 2002, 248-249; 336-338). 만약 이 기본가정이 깨지게 되면, 일반최소제곱의 표준오차(standard error)는 부정확한 것이 되어 이를 토대로 이루어지는 가설검증은 신뢰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주목할 사항은 패널자료를 분석할 때 이 기본가정이 깨지게 된다는 것이다.

(Cameron and Trivedi 2009, 267-270).

논문의 종속변수인 정당체제에 대한 측정은 유효정당의 수(effective number of parties)에 의존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어느 한 국가의 정당체제의 유형, 다시 말해 몇 개의 정당이 존재하느냐는 락소(M. Laakso)와 태게페라(R. Taagepera)가 제시한 유효정당의 수에 의해 측정되고 있는데, 논문에서도 이 지표를 이용할 것이다(Laakso and Taagepera 1979). 따라서, 이 지표는 의회선거에 참여한 각 정당의 의석률을 제공하여 계산한 후, 이의 총합을 구하고 이 총합으로 1을 나누어 구하게 된다.¹⁷⁾ 이를 계산하기 위한 각 국가의 정당의 의석률은 놀렌(D. Nohlen), 그로츠(F. Grotz), 하트만(C. Hartman)의 자료집에서 구할 것이다.

가설검증을 위한 논문의 회귀모델 안에는 독립변수와 통제변수가 포함되게 된다. 논문의 독립변수는, 언급되었다시피, 의회선거의 선거방식인 비례대표제와 대통령선거의 선거방식인 결선투표제, 그리고 사회균열이다. 의회와 대통령선거의 선거방식인 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는 가변수(dummy variable)로, 자세히 말해 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는 1의 값을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0의 값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다룰 것이다. 결선투표제와 비례대표제 여부에 대한 자료 또한 놀렌(D. Nohlen), 그로츠(F. Grotz), 하트만(C. Hartman)의 자료집으로부터 얻으려 한다.

사회균열 변수에 대한 정확한 측정은 쉽지 않은 문제이다. 논문은 대부분의 연구처럼 사회이질성(social heterogeneity) 지표를 대리지표(proxy indicator)로 하여 사회균열 변수를 측정하려 한다. 사례국가의 이질성 여부에 관한 자료는 알레시나(A. Alesina)를 중심으로 세계 190개 국가의 언어, 종교, 인종의 분절(fractionalization) 정도를 측정하려 했던 연구의 것과 피어론(J. Fearon)이 세계 160개 국가의 822개의 민족을 조사하여 작성한 사회이질성 자료가 있다(Alesina, Devleeschauwer, Esterly, Kurlat and Wacziarg 2002; Fearon 2003). 이 중 논문은 피어론의 자료를 사용하려 한다. 알레시나의 자료가 그 사회가 이질적이냐 아니면 동질적이냐 여부만을 나타낸 반면, 피어론의 자료는 이질성의

17) 이 방식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유효정당의 수 = $1 / \sum_{i=1}^n s_i^2$ 가 된다. 이 수식에서 s_i 는 i 정당의 의석률이다.

정도를 그 사회에 얼마나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는냐를 지표로 하여 0에서 1까지의 연속적인 숫자로 나타냈기 때문이다.

비례대표제, 결선투표제, 그리고 사회이질성으로 측정되는 사회균열 변수는 각각 회귀모델에서 독립변수로서 포함되기도 하지만, 이들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판별하기 위해 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 변수는 각각 사회균열 변수와 곱한 형태로, 다시 말해 상호작용 항의 형태로 회귀분석모델에 포함될 것이다. 이 상호작용 항을 모델에 포함시키는 이유는 이 연구논문의 가설의 핵심적 내용, 즉 선거제도의 차이에 따라 정당체제에 대한 사회균열의 영향력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분석함과 동시에 어느 선거제도가 사회균열을 더 잘 반영하는가를 검증하기 위해서이다.

회귀분석모델 안에는 통제변수로서 ‘선거구당 의석수’ 변수가 포함될 것이다. 이를 포함하는 이유는 선거구당 의석수 변수가 종속변수인 유력정당의 수에 영향을 미치면서, 또한 독립변수인 비례대표제 변수와 높은 상관관계를 맺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논문은 선거구당 의석수 변수의 영향력을 통제함으로써 종속변수인 유력정당의 수에 대한 비례대표제 변수의 순수한 영향력을 파악하려 한다.

선거구당 의석수 변수는 또한 비례대표제 변수와 곱하여 상호작용 항으로도 회귀모델에 포함될 것이다. 선거구당 의석수와 비례대표제 변수의 상호작용 항을 포함하는 이유는 선거구당 의석수가 어느 수준이 되었을 때, 정당체제에 대한 비례대표제의 영향력이 발휘되는가를 분석하기 위해서이다. 선거구당 의석수 변수에 대한 자료는 골더(M. Golder)의 논문에서 조사, 정리된 자료에서 구할 것이다(Golder 2006).

지금까지 논의한 종속변수, 설명변수, 그리고 통제변수가 포함되는 회귀분석모델의 기본 꼴을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 식에서 i 는 국가를, 그리고 t 는 시점을 나타낸다.

$$\text{유력정당수}_{i,t} = a + b_1 \text{비례대표제}_{i,t} + b_2 \text{결선투표제}_{i,t} + b_3 \text{사회이질성}_{i,t} + b_4 \text{선거구당 의석수}_{i,t} + b_5 \text{비례대표제} \times \text{사회이질성}_{i,t} + b_6 \text{결선투표제} \times \text{사회이질성}_{i,t} + b_7 \text{비례대표제} \times \text{선거구당 의석수}_{i,t} + \epsilon_{i,t}$$

IV. 패널분석: 사회균열, 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 그리고 정당체제

패널분석을 실시하기에 앞서, 논문의 종속변수와 독립변수의 특성을 검토해보도록 하겠다. 먼저 종속변수인 14개 국가의 유력정당수에 대한 기술통계를 <표 1>에 나타냈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평균 유력정당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6.65의 브라질이고, 가장 적은 국가는 2.13의 온두라스이다. 브라질의 1990년 의회선거는 8.67의 가장 많은 유력정당수를 만들어낸 반면, 가장 적은 유력정당수를 낳은 선거는 1989년의 온두라스 선거이다. 또한 이들 신생민주주의국가에서 가장 큰 표준편차 값을 보인 국가는 브라질이며, 반면 가장 작은 표준편차 값을 나타낸 국가는 스리랑카이다.

종속변수인 유력정당수에 이어, 독립변수인 비례대표제와 결선투표제, 그리고 사회이질성 지표를 살펴보았다. 비례대표제 선거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국

<표 1> 국가별 유력정당수 자료에 대한 기술통계

	평균 유력정당수	표준편차	최소치	최대치
아르헨티나	2.78	0.37	2.22	3.91
볼리비아	4.41	0.63	3.72	5.36
브라질	6.65	2.45	2.39	8.67
칠레	5.28	0.37	4.95	5.94
에콰도르	5.55	1.21	3.64	7.19
엘살바도르	3.19	0.61	2.41	4.03
과테말라	3.22	0.84	2.35	4.61
온두라스	2.13	0.14	2.00	2.41
한국	2.95	0.45	2.39	3.55
니카라과	2.31	0.30	2.05	2.79
파나마	4.38	0.98	3.26	5.57
필리핀	3.88	0.79	2.70	5.02
스리랑카	2.56	0.11	2.48	2.76
우루과이	3.17	0.17	2.92	3.33

가를 보면, 아르헨티나, (1994년 선거제도 개혁 이전의) 볼리비아, 브라질,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니카라과, 파나마, 스리랑카, 그리고 우루과이가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들은 주로 단순다수제와 비례대표제 방식을 결합한 혼합선거방식을 선거방식으로 채용하고 있다. 다른 한편, 대통령선출방식으로 결선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로는 (1995년 대통령선거 이후의) 아르헨티나, 볼리비아, 브라질, 칠레,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1996년 대통령선거 이후의) 니카라과, 그리고 (1999년 대통령선거 이후의) 우루과이가 있다.

사회이질성 지표는 전체인구에서 그 사회에 살고 있는 각 민족의 비율을 제곱하여 총합을 구하고, 이렇게 구한 총합으로 1을 나눈 것이다.¹⁸⁾ 이 사회이질성 지표가 1에 가까워질수록 그만큼 그 국가에 여러 다양한 민족이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반대로 0에 가까워질수록 국가의 민족구성이 단일민족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각 국가의 사회이질성 지표를 보면, 아르헨티나는 0.255, 볼리비아는 0.740, 브라질은 0.541, 칠레는 0.186, 에콰도르는 0.655, 엘살바도르는 0.198, 과테말라는 0.512, 온두라스는 0.187, 한국은 0.002, 니카라과는 0.484, 파나마는 0.553, 필리핀 0.239, 스리랑카 0.415, 그리고 우루과이는 0.250인 것으로 나타난다. 민족구성에서 가장 많은 민족이 공존하고 있는 국가는 볼리비아이며, 반대로 단일민족만으로 구성된 국가는 한국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독립변수들과 통제변수로 이루어진 회귀모델을 패널분석방법으로 분석한 결과¹⁹⁾는 <표 2>의 내용과 같다. 논문은 앞에서 제시한 두 개의 가설, 즉 사회이질성 변수가 정당의 수를 증가시키는 것은 비례대표제 혹은 결선투표제의 실시여부에 달려 있다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

18) 이 방식을 수식으로 나타내면, 사회이질성 지표 = $1 / \sum_{i=1}^n g_i^2$ 가 된다. 이 수식에서 g_i 는 전체인구에서 i 라는 민족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19) 논문은 브루쉬-패건 검사(Breusch-Pagan Test)를 모델 내 이분산성(heteroskedasticity)문제가 존재하는지를 검사하였다. 검사결과, 회귀모델에서 이분산성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이분산성의 존재여부를 검사하는 브루쉬-패건 검사에 대해서는 Wooldridge 2009, 271-273을 참조하기 바람.

해 상호작용 항을 포함시켜 분석을 했다. 이 분석결과를 토대로, 비례대표제 여부에 따른 유력정당수에 대한 사회이질성 변수의 한계효과(marginal effect)를 나타내는 수식을 나타내면, “ $\frac{\partial \text{유력정당수}_{i,t}}{\partial \text{사회이질성}_{i,t}} = 2.48 + 2.60 \times \text{비례대표제}_{i,t}$ ”이 된다. 여기에서 2.48이라는 수치는 비례대표제가 아닌 단순다수제 혹은 혼합선거제를 선거 방식으로 채택했을 때의 유력정당수에 대한 사회이질성 변수의 한계효과를 나타내며, 다른 한편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을 때의 유력정당수에 대한 사회이질성 변수의 한계효과와 값은 5.08이 된다. 이 수식은 조정변수(modifying variable)인 비례대표제 변수에 따라 종속변수인 유력정당수에 대한 사회이질성 변수의 영향력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이 영향력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제 여부에 따라 변화하는 사회이질성 변수의 조건계수(conditional coefficient)의 패널수정화된 조건표준오차(conditional standard error)를 계산해내서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 조건계수의 패널수정화된 조건표준오차를 구하기 위해서는, 2.48이 β_i 이

〈표 2〉 신생민주주의국가의 유력정당수에 대한 패널분석 결과

변수	계수	패널수정화된 표준오차
상수	3.23***	(0.16)
비례대표제 $_{i,t}$	-2.59**	(0.34)
결선투표제 $_{i,t}$	1.59***	(0.36)
사회이질성 $_{i,t}$	2.48***	(0.51)
선거구당의석수 $_{i,t}$	-0.19***	(0.03)
비례대표제*사회이질성 $_{i,t}$	2.60***	(0.88)
결선투표제*사회이질성 $_{i,t-1}$	-0.80	(0.83)
비례대표제*선거구당의석수 $_{i,t-1}$	0.20***	(0.03)
사례수	201	
결정계수(R ²)	0.422	

* p<0.10, ** p<0.05, *** p<0.01

고, 2.60이 β_2 라고 했을 때, $\sqrt{V(\beta_1, \beta_2 \times \text{비례대표제})}$ 라는 식을 계산하면 된다.²⁰⁾ 이렇게 계산한 조건표준오차 값은, 비례대표제를 채택한 경우에 1.06이고,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0.51이다. 이를 바탕으로 각각의 조건계수의 z수치를 구하면, 4.82와 4.86이 된다. 이 수치 모두 조건계수가 99%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하다는 점을 드러내준다. 다시 말해, 비례대표제를 채택했을 때의 조건계수는 양의(positive) 값이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자면, 이 분석결과는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 사회이질성은 정당의 수를 증가시킬 것이다”라는 논문의 가설 1을 지지해주었다.

다른 한편, 결선투표제 실시여부에 따른 유력정당수에 대한 사회이질성 변수의 한계효과는 $\frac{\partial \text{유력정당수}_{i,t}}{\partial \text{사회이질성}_{i,t}} = 2.48 - 0.797 \times \text{결선투표제}_{i,t}$ 인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은 비례대표제에서의 사회이질성 변수의 한계효과를 검증했을 때와의 동일한 방식으로 조건계수와 이의 패널수정화된 조건표준오차를 구해 결선투표제의 경우를 검증하였다. 이렇게 계산한 조건계수와 조건표준오차 값은, 결선투표제를 채택한 경우에는 각각 1.68과 1.02이고, 결선투표제를 채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2.48과 0.51이다. 이를 바탕으로 각각의 조건계수의 z수치를 구하면, 1.647과 4.834가 된다. 이 수치는 결선투표제를 채택한 경우의 조건계수가 90%신뢰수준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는 점을 드러내준다. 따라서 논문의 가설 2는 지지받지 못했다.

논문은 두 개의 가설의 검증이외에 추가적으로 두 개의 작업을 실시했다. 그 하나는 사회이질성의 차이에 따라 유력정당수에 대한 결선투표제의 한계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한 것이다. 유력정당수에 대한 결선투표제의 한계효과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frac{\partial \text{유력정당수}_{i,t}}{\partial \text{결선투표제}_{i,t}} = 1.59 - 0.797 \times \text{사회이질성}_{i,t}$ 이다. 이 수식에 따르면, 사회이질성의 정도가 심화될수록, 유력정당수에 대한 결선투표제의 영향력은 약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과 같이 사회이질성 정도가 극히 낮은 경우, 결선투표제의 조건계수가 1.59이고 조건표준오차는 0.36이었던 반면,

20) 이 수식을 풀어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Friedrich 1982를 참조바람.

$\sigma \frac{\partial \text{유력정당수}_{i,t}}{\partial \text{사회이질성}_{i,t}} \sqrt{V(\beta_1) + V(\beta_2) \times \text{비례대표제}^2 + (2 \times \text{비례대표제} \times \text{COV}(\beta_1, \beta_2))}$ 가 된다.

사회이질성 정도가 0.5로 중간수준이었을 때는 그 조건계수가 1.20이고 조건표준오차는 0.65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결선투표제의 한계효과는 사회이질성 정도가 낮은 국가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만, 사회이질성 정도가 높아질수록 이의 한계효과는 통계적으로 점점 유의미성이 감소되어간다는 것이다.

또 다른 추가 작업은 비례대표제가 선거구당 의석수가 어느 정도 되었을 때, 유력정당수를 증가시키게 되는지에 대한 것이다. 선거구당 의석수의 변화에 따른 유력정당수에 대한 비례대표제 변수의 한계효과를 보면, 이는 $\frac{\partial \text{유력정당수}_{i,t}}{\partial \text{비례대표제}_{i,t}} = -2.59 + 0.20 \times \text{선거구당의석수}_{i,t}$ 이었다. 이 수식은, 비례대표제를 채택했을 때, 선거구당 의석수가 13명이 넘어야 비로소 유력정당수가 양의 값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일러준다. 즉 유력정당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고려한다면, 선거구당 의석수를 충분한 수준으로 확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논문의 분석결과를 요약한다면, 결선투표제 채택여부에 따라 사회이질성 변수가 유력정당 수 증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것이라는 논문의 가설 2는 경험적으로 거부되었다. 반면, 비례대표제 채택여부에 따라 유력정당수에 대한 사회이질성 변수의 영향력이 달라질 것이라는 논문의 가설 1은 경험적으로 지지받았다. 이 분석결과는 논문의 서론에서 제기했던 “결선투표제와 비례대표제 중 어느 제도가 사회균열을 더 잘 반영하여 정당체제 형성에 영향을 주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준다. 사회이질성으로 측정된 사회균열을 정당체제 형성에 더 잘 반영하는 제도는 결선투표제가 아니라 비례대표제라는 것이다.

V. 결론

논문에서 우리는 정당체제 형성에 대한 대통령 및 의회선거제도와 사회균열 변수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를 분석하려 했다. 이를 통해, 논문은 대통령선

거제도인 결선투표제 변수와 의회선거제도인 비례대표제 변수 중 어느 요소가 그 사회의 사회균열을 더 잘 반영하여 정당체제 형성에 영향을 주는가를 규명하려 했다. 독립변수가 아닌 조정변수로서의 결선투표제와 비례대표제의 한계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논문은 결선투표제의 독립효과만을 보거나 선거방식으로서의 비례대표제의 조정효과를 다루지 못했던 기존연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었다. 신생민주주의국가를 대상으로 한 패널분석결과에 따르면, 결선투표제는 사회이질성으로 측정된 사회균열을 정당형성에 반영하지 못한 반면, 비례대표제는 이를 정당형성에 잘 반영해주었다. 또한 결선투표제는 사회이질성의 정도가 낮은 국가에서는 정당형성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지만, 그 정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그 역할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대의민주주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정당정치의 활성화²¹⁾를 위한 제도개혁 논의에 중요한 정치적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현재 우리사회는 그 이전시기와는 다르게 여러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문제가 중요한 정치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으며, 또한 단일민족사회에서 다문화사회로의 전환의 기로에 놓여 있다. 이런 시점에서 대의민주주의가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러한 변화와 관련된 문제를 정당이 제대로 대변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조정함으로써 사회를 통합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새로운 사회균열의 등장으로 야기된) 사회적 이슈가 정당체제의 형성에 반영되어야 한다. 논문의 결과가 보여주듯이, 의회선거제도인 비례대표제는 사회균열을 반영하여 정당형성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런 점에서 비례대표제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정치적 고려가 요구된다 하겠다.

21) 최장집은 대의민주주의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직접적인 정치참여의 확대보다는 대의민주주의의 주요 정치기체인 정당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최장집 2005).

【참고문헌】

- 안용훈. 2009. "투표율에 대한 결선투표제와 국제화 변수의 영향력 분석." 『한국정치학회보』 43 (4): 301-325.
- 최장집. 2005.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한국민주주의의 보수적 기원과 위기』. 서울: 후마니타스.
- Alesina, Alberto, Arnaud Devleeschauwer, William Easterly, Sergio Kurlat, and Romain Wacziarg. 2002. "Fractionalization," *Journal of Economic Growth* 8 (2): 155-194.
- Allardt, E. 1968. "Past and Emerging Political Cleavages." In Otto Stammer, ed. *Party Organization and the Politics of the New Masses*. Berlin: Institute of Political Science at the Free University.
- Beck, Paul Allen. 1984. "The Dealignment Era in America." In Russell J. Dalton, Scott C. Flanagan and Paul Allen Beck, eds. *Electoral Change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Cameron, A. Colin, and Pravin K. Trivedi. 2009. *Microeconometrics Using Stata*. College Station, Texas: Stata Press.
- Cerny, P. G. 1972. "Cleavage, Aggregation and Change in French Politic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 (4): 443-455.
- Clark, W. Roberts, Matt Golder. 2006. "Rehabilitating Duverger's Theory: Testing the Mechanical and Strategic Modifying Effects of Electoral Law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39 (6): 679-708.
- Duverger, Maurice. 1954. *Political Parties: Their Organization and Activity in the Modern State*. London: Methuen.
- _____. 1986. "Duverger's Law: Forty Years Later." In Bernard Grofman and Arend Lijphart, eds. *Electoral Laws and their Political Consequences*. New York: Agathon Press.
- Epstein, Leon. 1967. *Political Parties in Western Democracies*. New York: Praeger.
- Fearon, James. 2003. "Ethnic and Cultural Diversity by Country." *Journal of Economic Growth* 8 (2): 195-222.

- Friedrich, Robert J. 1982. "In Defense of Multiplicative Terms in Multiple Regression Equation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6 (): 797-833.
- Huntington Samuel P. 1993. *The Third Wave: Democratization in the Late Twentieth Century*.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 Gallagher, Michael, Michael Laver, and Peter Mair. 1992. *Representative Government in Western Europe*. New York: McGraw-Hill.
- Gujarati, Damodar N. 2004. *Basic Econometrics*. McGraw-Hill Inc.
- Inglehart, R., and A. Hochstein. 1972. "Alignment and Dealignment of the Electorate in France and the United States."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5 (): 343-372.
- Inglehart, R. 1984. "The Changing Structure of Political Cleavages in Western Society." In Russell J. Dalton, Scott C. Flanagan and Paul Allen Beck, eds. *Electoral Change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Jones, Mark. 1994. "Presidential Election Laws and Multipartyism in Latin America."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47 (1): 41-57.
- LaPalombara, Joseph, and Myron Weiner, eds. 1966. *Political Parties and Political Developmen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Leduc, Lawrence. 1984. "Canada: The Politics of Stable Dealignment." In Russell J. Dalton, Scott C. Flanagan and Paul Allen Beck, eds. *Electoral Change in Advanced Industrial Democraci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Linz, Juan. 1990. "The Perils of Presidentialism." *Journal of Democracy* 1 (1): 51-69.
- _____, and Arturo Valenzuela, eds. 1994. *The Failure of Presidential Democracy: Comparative Perspective, Vol. 1*. Baltimore and London: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Lipset, Seymour Martin, and Stein Rokkan, eds. 1967. "Cleavage Structures, Party Systems and Voter Alignments." In S. Lipset and M. Rokkan, eds. *Party Systems and Voter Alignments: Cross-National Perspective*. New York: Free Press.
- Mainwaring, Scott, and Matthew S. Shugart. 1997. "Juan Linz, Presidentialism, and Democracy." *Comparative Politics* 29 (4): 449-471.
- _____, eds. 1997. *Presidentialism and Democracy in Latin Americ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ichels, Michael. 1966. *Political Parties: A Sociological Study of the Oligarchical Tendencies of Modern Democracy*. New York: The Free Press.
- Neto, Octavio A., and Gary W. Cox. 1997. "Electoral Institutions, Cleavage Structures, and the Number of Parti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1 (1): 149-174.
- Nohlen, Dieter, ed. 2005a. *Elections in the Americas, Vol. I*.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2005b. *Elections in the Americas, Vol. II*.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_____, Florian Grotz, and Christof Hartmann, eds. 2001. *Elections in Asia and the Pacific*.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Ordeshook, Peter, and Olga Shvetsova. 1994. "Ethnic Heterogeneity, District Magnitude, and the Number of Parti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8 (1): 100-123.
- Ostrogorski, Moisei. 1970. *Democracy and the Organization of Political Parties*. New York: Haskell House Publishers.
- Panbianco, Angelo. 1988. *Political Parties: Organization and Power*. Cambridge,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ae, Douglas W. 1971.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Electoral Law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Riker, William. 1982. "The Two-Party System and Duverger's Law: An Essay on the History of Political Scien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6 (4): 753-766.
- Sartori, Giovanni. 1976. *Parties and Party System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hugart, Matthew, and John Carey. 1992. *Presidents and Assemblies; Constitutional Design and Electoral Dynamic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ooldridge, Jeffrey M. 2002. *Introductory Econometrics: A Modern Approach, 2nd Edition*. South-Western College Publishing.
- Wooldridge, Jeffrey M. 2009. *Introductory Econometrics: A Modern Approach, 4th Edition*. South-Western College Publishing.

[ABSTRACT]

Electoral Formula, Social Cleavages, and the Political Party System

An, Yong Heun |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This paper is aimed at analyzing the interactive effect of presidential and legislative electoral system and social cleavages on the formation of the political party system. By doing so, this paper tries to explore which system, the run-off system as a presidential electoral formula or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as a legislative electoral formula, has a significant effect on the formation of the political party system in a way to represent social cleavages better. To perform this, this paper pays analytical attention to the marginal effect of the run-off system and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as not an independent but a modifying variable on the effective number of legislative parties. The effort of this paper enables u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previous studies which either focused only on the independent effect of the run-off system or neglected to deal with the modifying effect of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as an electoral formula.

The statistical result of the panel analysis reveals that it is not the run-off system measured by the index of social heterogeneity but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that represents social cleavages to exert influence on the formation of political parties. In addition, the run-off system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formation of political parties only in the countries where the extent of social heterogeneity is low. If it is high, the run-off system does not have any effect on the formation of political parties.

Key Words |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run-off system, social cleavage, social heterogeneity, political party system, interactive effect, panel analysis